

정례브리핑

2020.2.5(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보실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저녁 8시에 경기도와 뉴스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공동 주최하는 '통일신년평화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현황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물어보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북한 보건성 국장이 2월 2일 북한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관련 사항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당장 3일 뒤에 북한 건군절이 있고 광명성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북한이 외국인 관광도 막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 대형행사들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신 점 있는지.

<답변> 신종 코로나 발병 사태와 관련해서 대규모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확진 환자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보았으며 저희는 2월 2일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언론보도 중에서 통일부가 북측 방역협조를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지원할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 단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측 발생 현황 등 상황을,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 *** 시나리오를 마련하셨다는 건가요?

<답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했다고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오는 4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몇 개 나왔는데 혹시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